

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③



고 권승관 회장

(지난호에 이어)

오전 10시에 출발해 오후 5시경에야 곡성 입면에 다다를 수 있었다. 입면 면장은 벌써 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며 신신히 내주었다. 요즘 가치로 1억 원쯤 되는 거금이었다.

다음 날 돈을 확인한 주인은 무척 반가워하면서 나를 인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곧 본국으로 떠난다. 공장 안에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손대지 않고 떠날 테니 당신이 맡아서 해보라. 그리고 돈도 좋고 물건도 좋고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한 거시 있으면 말해 보라.”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 공장만 맡겨달라고 했다. 주인은 공장 문서와 함께 그동안 정리라며 일본도(刀) 한 자루도 내게 남겨 주었다. “오직 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준 조선사람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은 없으니 잘차 재내가 이 공장을 맡아 뱃심 있게 운영을 해보라”하였다.

파철공소 관리인이 되다

일본인 주인으로부터 공장을 넘겨받기는 했으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그래서 공장문을 닫아 둔 채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관망만 하고 있었다. 주인 시계 우리는 1945년 10월 목포로 내려가 배를 타고 본국으로 떠나갔다. 주인이 떠나자 나는 공장으로 이사를 했다. 주인은 귀국에 앞서 그의 소유로 되어있던 공장부근의 집문서(야20제)를 나에게 넘겨주고 갔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에 욕심이 없었다.

우리 사회의 질서는 그야말로 문란하기가 짝이 없었는데, 일본인이 비운 집이면 어느 집이고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이던 판국이었으니 말이다. 나는 오로지 내가 일할 터전인 공장 하나만으로 만족

했다. 공장으로 이사를 마쳐 놓고 해방과 더불어 이리저리 흩어졌던 공장 기술자들을 찾아 나섰다. 다시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였다. 모두들 내 권유에 흔쾌히 응해 주었다.

이러는 사이 미군정이 시작되어 그해 9월 23일에 미군 장교인 김버트가 군정지사로 부임해 왔다. 김버트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최영욱(崔泳旭)씨를 한국인 지사로 임명하였다.

일인들이 두고 간 가족의 대문에 서너 명의 한국인 문패가 나붙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9월 25일을 기해 일체의 직산을 동결시키고 12월 4일에는 그 소유권을 군정에 귀속시키기에 이르렀다.

한편 기업체들에 대한 직산권리는 전남도청 광공과에서 관리인을 선정해 맡기도록 하였다. 이때 관리인 선정에는 연고권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럼에도 오늘날 전남과 일선방직의 전신인 종연방직 전남공장, 전남도시제사공장 등 대기업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이 관리인으로 선정되었고, 규모가 작은 공장이나 주조장, 극장, 여관 등은 비교적 연고권이 잘 지켜졌다.

나는 그해 10월 전남도청 광공과로부터 파철공소의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리하여 11월 1일부터 ‘파철공소’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채 공장 문을 열었다. 당시 대부분의 직산 기업체들은 일본인이 장악했던 경영과 기술, 그리고 자본의 부족으로 원활한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더욱이 관리인들은 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욕은 없는 채 일인들이 남기고 간 재고품 정리에만 급급했다.

파철공소 불하

파철공소는 해방 전에 꽤 많은 양의 일감을 주문받아 놓고 있었는데, 나는 우선 도청 농지개발과에서 주문받았다가 해방으로 중단된 영광 범성포 배수갑문 제작부터 시작해 석 달 만에 끝냈다. 이어서 토건업자들이 맡겨온 수문 제작 등의 일을 착실하게 해나갔다.

나는 일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워서 실천하였다.

- 첫째, 제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 둘째, 약속을 지키 줄 알아야 한다.
- 셋째, 생산된 제품의 이익을 생각하자. 특히 ‘장사에는 신용이 최선의 상술’이라는 점을 제일 중시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생명으로 여겼으며, 함께 일하는 공장사람들에게 늘 강조하였다.
- 일감은 날로 늘어났다. 직원들의 사기도 높고 수입도 많아졌다.
- 당시만 해도 물자가 워낙 귀한 형편인 제다 화폐가치마저 자고 나면 폭락했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면 돈이 들어오는 족족 원자재를 확보하는데 재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시절 나는 원자재인 쇳물을 수집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고 다녔다. 요즘처럼 교통이 좋지 못해서 열차 지붕 위에 올라타고 이동하기도 밥먹듯 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이 종식되었다. 출범 이후 정부는 미군정에 의해 관리되었던 일본인 ‘귀속재산’을 이양 받아 이듬해인 1949년부터 개인들에게 불하하기 시작했다. 불하 역시 연구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한 지인으로부터 ‘배정 좋은 어떤 사람이 당신의 공장을 뺏으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불하신청을 했다. 이리하여 1950년에 파철공소를 불하 받았다. 당시 나에게 이 불하대금은 엄청난 돈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불하가 있기 1년 전에 사두었던 지가증권이 크게 올라 그 이익금으로 불하대금의 절반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한국 공작기계 공업의 선조자 구실을 하게 된 화천의 탄생도 이 지가 증권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6·25사변의 발발

공산 인민군이 광주에 들어온 것은 정확히 1950년 7월 23일이었다.

책임자인 뜻깊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공장을 접수하겠으니 언제고 자기네가 요구하는 날짜에 비워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상황이 상환인자라 그러마고는 했으나 나도 이렇게 요구했다.

“좋습니다. 공장은 가져가되 일자리는 빼앗지 말아 주시오.” 이같은 나의 요구에 책임자는 한동안 무슨 생각인가를 하더니 “좋소. 동무의 말대로 할테니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시오.”라며 보내 주었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공장에 들러 동생에게 방금 인민위원회에서 한 말을 전하고, 혹시 그네들이 와서 물건을 달라고 하거든 군소리 말고 모두 내주되 가져간 물건을 어디다 사용하는지만 잘 봐주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 판단은 적중했다. 인민군들은 얼마 후 유엔군의 공습이 있자 우리 공장 안에 있던 철관이란 철관은 모조리 빼내다가 방공호의 뚜껑으로 사용했다. 그들이 파놓은 방공호는 주로 서서동 일대와 옛 광주세무서 자리에 많았다.

그들은 또 공장에 있던 전기 용품까지 죄다 가져다가 철관이나 쇠파이프를 자르는데 쓰고는 백운당에 버려두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철관과 함께 찾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장은 전쟁의 피해를 비교적 덜 입었다.

(다음호에 계속)

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⑬

(규원사화)

■ 一沙權正孝 옮김



골의 늪은이와 들녘의 백성들이 이를 일컬어 ‘석성항(石城隍)’이라 하며 자못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뜻을 품고 있으니, 뒷날

에 와서 풍속의 쇠퇴함이 어찌 이다지도 심하던 말인가.

初, 神市之末, 蚩尤氏兄弟, 雖自 鹿退歸, 而東人之占居淮岱者甚多, 與漢土之人雜處, 農 織牧, 實以爲業. 且南鄙海島之民, 皆以 珠魚貝, 相交易於漢土, 稍稍住息於濱海之地. 至是海岱, 江淮之地, 遂爲其州里, 與漢土之民, 交(遊) [游]而錯居. 《尚書》所稱, 夷 萊夷 淮夷 島夷者, 皆是也.

처음 신시씨의 말기에 치우씨의 형제가 비록 탁목으로부터 물러나서 돌아왔으나 동방의 사람으로 회대(淮岱) 지역을 차지하고 생활한 자가 매우 많았으니, 한 나라 땅의 사람들과 섞여 거처하면서 농사짓고 누에치며 길잡하고 가축을 기르는 것을 밀천으로 하여 생업을 삼았다. 또한 남쪽 지방의 바다섬 백성들은 모두 진주와 물고기와 및 조개 등으로 한 나라 땅에서 서로 교역하더니 차차 해변의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회대(海岱)와 강회(江淮)의 땅에는 마침내 마을을 이루어 한 나라 땅의 백성들과 교류하며 섞여 살게 되니, 《상서(尙書)》에 이른바 우이(夷)·레이(萊夷)·회이(淮夷)·도이(島夷) 등이 모두 그들이다.

夫餘之平南夷也, 溯水以南, 完服王化, 以故靑丘之民, 得漸遷居, 及洪水既平, 南渡者益多, 於是南夷之人, 并沾於神化, 遂變其俗. 後之辰 弁諸族, 皆是也.

부여가 남쪽의 이인(夷人)들을 평정하니 열수(洌水)의 남쪽은 완전히 왕의 교화에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 까닭에 청구의 백성들이 점차 옮겨가서 살게 되었고, 홍수가 완전히 다스려진 뒤로는 남쪽으로 넘어가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로서 남쪽의 이인들도 함께 신인의 교화에 물들어 마침내 그 풍속이 변화하였으니, 후의 진변(辰弁)의 못 부족들이 모두 그들이다.

(다음호에 계속)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재단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영선(부총재) 100만원 △권길삼(부총재) 100만원 △권무탁(부총재) 100만원 △권용기(부총재) 100만원 △권영한(부총재) 100만원 △권주연(부총재) 60만원 △권인탐(부총재) 20만원 	<p>소계 58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소공문중(권희철) 10만원 △권혁원(안양공중회장) 구기주 1박스 	<p>합계 590만원</p>



권율과 전라도 사람들 ③

■ 김영현 (광주시청 북구청 문화관광과장)

(지난호에 이어)

이 무렵 영남과 호서, 경기지역은 피난민들로 넘쳐났다. 왜적의 침입이 가장 심했던 영남좌도 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간 것 외에는 모두가 영동으로 들어갔으며, 영남우도 사람들은 전라도로 몰림듯이 들어오고 있었다.

군사 모집을 위해 격문을 발표하다

악법 10조의 발표로 광주의 민심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친 근왕병 실패의 후유증은 실로 컸다.

군민들은 관리를 만나면 의심하고 두려워 도망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깊은 산속으로 도망간 사람도 많았다. 더군다나 용인패전 직후 관주사람 고경명을 맹주로 하는 호남연합의병의 장설로 많은 광주 장정들이 이미 의병에 참여했기에, 권율은 군사를 소집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권율은 최선을 다한다. 먼저 그는 스스로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발표하고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때 발표한 격문이 『만취당살기』를 통해 전해진다. 여러 ‘고을에 의병을 소집하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운이 막히고 나라가 암흑의 운을 당하여 삼나라 왜놈이 틈을 만들어 백성들이 위급한 때를 당하게 되었다. 늑대의 어

그니와 독사의 독이전국에 깊게 퍼져서 닭소리나 개소리를 사방에서 들을 수가 없으니 3천리 강산의 위급함이 조석에 달렸노라. 슬프도다! 2백 년 국가 기초가 공고함을 믿을 수 없어 임금이 서쪽으로 피난하였으니 그 누가 통탄한 한이 없리오. 단신으로 이곳에 와서 나포한 조국에 몸을 바칠 뜻이 있으니 군부의 원수를 어찌 잠깐 동안이라도 잊으랴! 신하된 도리로 함께 물불이라도 뛰어뜰 각오이다.

이에 호남은 국가를 보위하는 근본이며 왕업이 창건된 곳이다. 도순찰사는 군사를 거두어 움직이지 않으니 국가에 봉사하지 못한 죄를 피할 길이 없다. 백성들은 적을 만나 피해를 입었으니 어찌 어진 사람이 없는 나라라고 하겠는가. 아 슬프다! 각 고을의 남자들은 모두 나라에 충성을 다하라. 나는 언제나 국가를 생각하면 피를 토하고 눈물을 지으며 한 몸을 돌보지 않고 시종 두려움이 없으나 이리 때와 같은 적의 세력이 더욱 방자하고 막되어 행행하는 이때 오합지졸로는 적을 건드리 무찌르기 어렵다.

의병을 모집하여 피로써 맹세하고 흉적을 소탕하는 데 있어 힘을 다하여 함께 토벌할 것이다. 우리들이 성심을 다하고 우리 선조 대대로 물려온 산천을 맡게 하여 다시 반석 위에 사직을 안정케 함으로써 우리의 공명을 길이 역사에 남기자. 나를 따라 왜적을 토벌할 사람은 속히 지정 한 날짜에 모여 주기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역사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역사는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에 변하는 것이 없다면 발전도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새롭게 바뀌는 것에 희망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왕조가 바뀌게 되면 망해 버린 옛 왕조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그 화려했던 옛날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망해버린 사람에 대한 정리(情理) 때문이 아닐까?

삼국을 통일한 진(晉)은 북쪽으로 오호(五胡)에게 내주고 남쪽으로 쫓겨 와서 동진(東晉)으로 왕조를 재건하였지만 황실을 이를 제대로 추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호족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황실에 맞서서 독립하여 스스로 황제에 오르는 일도 있었다. 환현(桓玄)의 환초(桓楚)다.

그러나 이러한 환현을 쳐부순 유유가 대신 등장하였다. 그는 북벌을 통하여 장안까지 쳐 올라갔고, 또 환현을 몰아냈다. 환현이 물러갔다고 해도 다시 권력이 동진의 황제에게로 갈 수 없는 것이 역사다. 그래서 힘을 가진 유유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권력이 동진 황실의 사마씨에게서 환희로 다시 유씨에게로 옮겨 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힘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역사의 순리일 것이다.

유유는 이미 환현을 몰아내면서 대의

(大義)를 내세웠으므로 동진의 최고의 공신이 되어 황제나 누릴 수 있는 왕자(王爵)를 받아 송왕이 되었고 다시 구석(九錫)을 받았다. 이제 올라갈 곳은 황제가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것 밖에 없는 위치가 되었다. 그는 이러한 역사의 순리를 잘 알았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는 결단이 필요했다.

드디어 송왕 유유는 여러 사람과 술자리를 마련하고, 집짓 신세 한탄을 했다. ‘내가 이처럼 아주 높아졌는데, 만물은 꼭 차는 것을 꺼리니 오래도록 태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작위를 도로 돌려드리고 경사로 돌아가서 노후를 보내려고 한다.’ 그 많은 권력을 내 놓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말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보통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서 정말로 훌륭한 생각을 하였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었다. 부랑(傅亮)이었다. 그는 술자리가 파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유유에게 황제가 있는 경사로 가겠다고 하면서 허락을 받았다. 어디에도 현



동진 황제를 내쫓으려 간다는 말은 없었다. 마침 장성(長星)이 밤하늘을 가로 질러 갔다. 장성이 나타나는 것은 옛 것을 청산하고 새 것이 들어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터라 부랑을 회심의 미소를 띠다.

유유와 구체적인 말을 한 일은 없어도 이미 뜻은 통했다. 부랑은 경사(京師)로 가서 유유를 경사로 불러들이라고 황제에게 권고했다. 이 말을 들은 동진의 마지막 황제 공제(恭帝)는 바로 알아들었다. 자기의 시대, 동진의 운명이 다 한 것을 안 것이다. 바로 유유에게 경사로 들어오라고 연락했다. 그리고 ‘환현의 때 진씨(晉氏)는 이미 천하를 갖지 못하였는데 다시 유공(劉公)이 연장하게 되어 곧 20년이 되니, 오늘의 일을 본래 달갑게 여기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유유에게 선양하였다. 유유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더 황제 노릇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공제가 궁궐에서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인간의 정리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리일 뿐, 그 정리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은 정리에 얽매지 않은 사람은 새로 황제에 오른 유유나 이를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부랑이나, 그리고 물러나는 공제나 모두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지나 온 세월을 거슬러 본다면 오늘에 나타나는 현실은 당연한 것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는 일은 내일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분명한 것이다. 어찌 오늘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알림

안동권씨종보는 3면에 파종회 예하문중 남이며 파종순, 세차순으로 삼당부터 게재됩니다. 11월 문중총회에서 문경공 子 18世 익평공(갈창부원군, 좌의정)과 안숙공 子 18世 마전공(마전군사, 원종공신) 세항은 11월 기사 쪽주로 게재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후순계에서는 넓은 야망으로 양해바랍니다.

바로잡습니다

▲ 본지 2013년 11월 1일 (제461호) 3면 추밀공·충헌공추항제봉행란에 충헌공 諱(諱)를 慶(위)로 바로잡습니다.